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자존심과 방어기제¹⁾

구 본 권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본 연구는 영재 고등학교 학생의 자존심과 방어기제 특성을 밝히는 연구였다. 연구 대상은 과학 고등학교 102명과 일반 고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자존심과 방어기제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학생이 평재 학생 보다 개인, 사회 자존심에서 각각 높았다. 이들의 남녀 비교에서도 영재 집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자존심에서는 평재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개인 자존심이 높고, 영재 학생은 반대로 여학생이 높다. 사회 자존심은 영재와 평재 모두에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에 따른 자존심에서 영재 학생의 성적 상 집단이 평재 상 집단에 비해 사회 자존심이 높고 특히 개인 자존심에서 더 높았다. 성적 하 집단에서는 평재 학생이 영재 학생 보다 개인 자존심이 높았다. 그러나 사회 자존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영재와 평재의 10개의 하위 방어기제에서 고립기제 만이 평재 보다 영재 학생에서 높았다. 억압, 퇴행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다. 따라서 고립, 퇴행은 여학생이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존심 수준에 따른 방어기제의 비교에서 자존심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승화를 제외하고 모두 낮다. 따라서 방어기제는 자존심이 낮은 집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높은 집단은 승화를 많이 사용한다.

핵심어 : 자존심과 방어기제

영재 학생들은 자기와 관련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한다. 개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행동한다. 그들은 학교 생활에 즐거워 하며 책임에 충실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다. 영재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해 냉정하고 도덕적으로 적응을 잘 한다(Getzels, Jackson, & Rlawodms, 1986).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을 많이 갖는다.

자기 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며 남에게 베풀거나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다.

영재 학생의 자아개념과 성격 연구에서도 사회·정서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erman, 1947; 전경원, 1994). 그들은 남을 싫어하거나 자기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다. 미국,

1) 본 과제는 1995년도 강남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조사에 협조하여준 경기과학고등학교 김종오 교감, 자료를 보내준 광주대학교 전경원교수,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과정에 공부하는 김미애선생에게 감사 하며, 연구 진행을 도와준 박소영 교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독일,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영재아동 캠프에서 나타난 특성에서도 그들은 남에게 솔직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다. 의사소통 훈련과정에서 말하기 힘든 자기 성격 특성이나 또는 당혹 할만한 자기 성격문제, 상대를 불신하는 말도 숨기지 않으며 자신의 약점 실수에 대해서도 매우 쉽게 말하였다(Schwab, Baldwin, Gerber, Gamori and Satir, 1989).

영재학생은 아동기에 정서적 안정이 성인에서도 유지된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80% 이상)적응이 좋고 신경증이나 정신병이 없다(전경원, 1994).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연구도 있다.

영재 학생의 정서적 욕구는 청년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기 쉽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고도의 지적 발달이 사회 정서적 발달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재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성이 낮은 데 있다(전경원, 1994).

Termans(1954)의 영재의 종단적 연구에서 영재보다 평재가 사회 정서적으로 적응이 좋고 정신적인 건강도 좋다. 이같은 지적은 영재학생들은 평재보다 갈등 선상에 더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의 기대나 성취만큼 성공적으로 경쟁함으로써 자신의 영재성에 관하여 시련을 겪는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취는 외적인 요인 보다는 개인의 자존감과 관련된 특성이 더 크다. 더불어 성공감, 사회적 지위, 신념, 교육, 부모의 기대 등이 상승된 환경과 자신을 과신하게 되어 성취 욕구 만큼 부담으로 적응한다. 그 외에도 영재학생도 청소년기는 육체와 생리적 요인이 자신감과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성취와 시련은 영재학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어린시절 부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련을 경험한다. 이 외에도 체격과 용모를 남과 비교 함으로서 자아에 영향을 준다. 영재 학생의 성취에 대한 집착은 크지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잃게된다. 지나친 자기 집착은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된다. 남과 상호작용이 적은 영재학생은 자기 인식과 일치되지 않으므로서 편견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에서 영재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갈등을 겪고 개인의 영재성을 완전히 추구하려는 욕구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동료를 얻기가 어려워 현실에 실증을 느끼며 방황한다. 따라서 그들은 학교나 가정 밖에서 동료들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이 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나 남들이 기대하는 목표에 도달되지 않으면 실망한다. 특히 성취에 대한 집착은 두려움, 고립으로 나타난다. 성공에 대한 공포는 남자보다 여자 영재에서 더 나타난다(Honer, 1969, 1972; 전경원, 1994). 영재들은 완전을 추구하려는 성격 때문에 불안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건전한 자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아 개념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억압, 고립 당하기 쉽다. 그들은 자신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어린 시절 부터 고립과 억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Brandwein, 1981). 특히 정서와 본능적 에너지의 처리에서 억압된 경험을 많이 한다. 그들은 일반 학생보다 말이 적고 과다한 충동에서 통제성이 높고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한다(이균현, 1989). 이 같이 성취 수준이 높거나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적응 방법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준다.

한편 자존심에 관한 연구는 거의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보다 반대의 결론을 제시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낮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낮은 자존심을 갖은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타인의 관계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

는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을 타인에게 보이기 보다 부정적인 속성을 숨기는데 훨씬 더 민감하다. 이러한 특성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부정적인 의사 소통에 주로 반응하는데 비하여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의사 소통에 더 잘 반응한다(Laxer, 1964). 따라서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에 비해 심한 상처를 입기 쉽고, 우울증이나 정서적 긴장이나 불안을 보인다(Wilson & Krane, 1980). 안정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불안한 자존심을 갖은 사람 보다 적응을 잘하고 열등감이나 신경증적인 방어기제를 적게 사용한다(송인섭, 1989 ; 구본권, 1992, 1993, 1994). 따라서 영재성에 관계되는 의문은 영재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인을 자극 할 수 있다.

자존심은 정신건강 지수와 관련지어 언급한다(Coopersmith, 1991). 그들이 자존심이 낮은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하거나 무가치한 느낌으로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은 무력하고 열등하며 스트레스로 생긴 걱정을 참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Coopersmith, 1991).

Jacobson(1986)은 정신병 환자들의 자아발달과 자존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은 자아 수준이 낮고 자존심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했다. 심한 정신장애자는 매우 낮은 자존심을 과장된 환상으로 나타 내고 있다.

자존심이 상실되거나 자존심이 위협을 받을 때 적응하기 위해 방어기제 특징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다르며, 자존심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의 방어기제의 사용은 차이가 있다(Ihilevich & Gleser, 1986 ; 구본권, 1993).

몇몇 학자들은 영재인은 선천적으로 정신 질환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를 해왔다. 1864년 천재와 광기라는 논문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 중에는 정신병이나 정신질환 증세로 고통을 겪

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전경원, 1994, 73-76 ; 김정업, 1975).

이상의 연구에서 영재 학생의 자존심이 높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이나 그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회적 통념은 그 만큼 정서적인 갈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재학생들의 자존심에 서로 다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Andrzej Sekowski,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심과 방어기제의 계속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로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방어기제 수준을 일반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특성을 알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제기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재 학생들은 평재 학생들 보다 자존심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기대나 성취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더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이 적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지만 그와 반대의 가정한 연구들도 있다. 따라서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 보다 자존심은 높으나 적응에는 일반학생들 보다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상반된 가정을 방어기제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가? 방어기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이에 관한 가설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존심과 방어기제 관계를 밝힌 연구도 매우 적지만 영재학생의 자존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는 더욱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생(이상 평재학생)과 과학고등학생(이상 영재학생)의 자존심과 방어기제를 성별, 학업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영재 학생들이 평재 학생 보다는 자존심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영재 학생들이 평재 학생들 보다 방어기제를 적게 사용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영재 학생들의 성에 따라 방어기제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존심과 방어기제와 관련된 연구

자존심(Self-Esteem)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자기 가치나 감정 또는 관념적인 평가 수준으로 설명된다(Wells & Maewell, 1976; Rosenberger, 1965; Cooper smith, 1991). 자존심은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 내거나 불신의 태도를 나타 내며, 능력, 성공의 예측, 수용에 따라 반응할 준비를 하는 정서적 수준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표시하는 가치 판단이다. 즉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다(Cooper smith, 1967, 1981, 1991).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자존심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현재의 자아개념과 이상적 자아개념 사이에 일치 수준으로서 설명하였다(Slagle, 1965). 여기 두 개념 사이의 일치에서 높은 자아개념을 갖춘 사람은 높은 자존심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개인은 단순히 자신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자존심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성취 수준의 만족에서 높은 자존심과 낮은 성취 수준에서 낮은 자존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높거나 낮은 자존심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존심은 개인적인 만족감과 효과적인 판단과 관련된다. 자존심은 이 보다 복잡한 인지적 요인과 미분화된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Pelham & Swan, 1989).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동의와 인간이 생의 초기에 갖는 좋은 자기 경험의 양으로 결정된다(Sullivan, 1953).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적극적인 관심에 대한 욕구이며(Rogers, 1959) 다른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확신(Subidentities)의 비율이다(Miller,

1963).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최고의 조건에서 개인이 중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줌으로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존심의 형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Slagle, 1965).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지적인 양육을 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경우 아동은 자신의 공격성을 내부로 향하거나 자신의 성취 기준을 높게 설정한다. 그러나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심한 경우에 아동은 정서적인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고 철수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초기에 정서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정서적인 경험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비 현실적인 높은 자존심을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에서 받는 자신의 평가를 왜곡시키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Slagle, 1965).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불가능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부모들이 아동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데 그 원인이 있다. 반대로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습관은 자존심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Rosenberger, 1986).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성취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낮은 자존심의 원인이 된다.

한편 자존심은 정신건강지수와 관련지어 언급한다(Coopersmith, 1991; Fitts, 1972). 그들이 자존심이 낮은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 하거나 무가치 하다는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은 무력하고 열등하며 스트레스로 생긴 걱정을 참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Coopersmith, 1991). 낮은 자존심은 높은 불안, 우울증, 부적응, 정서 긴장과 관계가 있었다(Per-

cell et al., 1974; Willson & Krarne, 1980; Rios, Garccia & Cook, 1975; Mylet et al., 1979; Kaplan, 1980).

Jacobson(1986)은 정신병 환자들의 자아발달 수준과 자존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의 자아발달 수준이 단순하고 자존심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아발달의 초기는 인간의 삶의 경험에 의존한다. 자아성숙을 개인,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에 개인적인 연속이라고 한다면 자존심의 발달은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게 분화된 이동이다(Jacobson, 1983). 개인의 가장 낮은 자아단계(precomformist)는 조심성이 있고 감정에 끌리고, 비난을 구체화하고, 인지양식, 도덕, 독립적인 상호관계에서 그 양식이 고정된다(Jacobson, 1986). 자아의 중간 단계는 서로를 받아드리는 것과 관련되며 겉으로 좋아 보이며, 외부 규칙들에 순응하며, 규칙이나 규범을 어긴 경험이 없다. 가장 최고의 단계는 개인은 다양한 인지양식을 통해 내적 갈등과 대체하는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감정 이입, 욕구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아 단계들은 그 단계에 따라 방어기제가 독특한 유형으로 나타날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낮은 자아 단계에서 개인은 더욱 행동을 할 것이고,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내부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낮은 단계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임상 연구자들은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심한 상처를 입기 쉽고, 경직된 방어기제를 사용하므로써 안정감이 없다고 믿고 있다. 예컨대 자존심이 낮은 사람에게 때로 신경증이 나타나고, 보다 혼란스럽고, 다양한 정신병(예를 들면 편집, 경조, 단순 정신 분열증)들이 임상에서 경험된다. 여러 연구자들은 심한 정신장애자들이 매우 낮은 자존심을 과장된 환상으로 나타 내고 있다고 보고한다. Laxer(1964)와 Beck(1967)는 자존심이 낮은 집단이 부정적인 것에 주로 반응한 반면, 자존

심이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자존심의 차이는 특정 과업의 성공과 실패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Kline, 1988). Fitch(1979)는 개인의 실패가 자존심이 높거나 낮은 사람과 동기가 높거나 낮은 사람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실패로 인하여 앞으로의 문제를 불확실한 것으로 보는 반면, 높은 자존심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발전의 속성 보다는 스스로 깎아내리는 속성에 훨씬 더 민감하다(Silverman, 1964).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성공적 수행과 동기 유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Johens, 1973; Epstein, 1980). 연구자들은 대부분 높은 자존심은 방어기제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반면, Coopersmith(1959)는 이와는 관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더 많다. 특별한 방어기제와 자존심은 적응과 건강, 성격발달의 이해, 정신병리와 매우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Ihilevich & Gleser, 1986). 자존심이 위협을 받으면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는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욕구이다(Helena Krarkowska & Doroto zolnierzyk, 1988). 반대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존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방어기제는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Slagel(1965)은 대학에서 사교 클럽에 입회 원서를 낸 여대생들의 자존심 변동에 관한 연구를 했다. 높은 자존심을 보인 여대생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지 모르는 정보에 대해 방어기제를 민감하게 사용하여 자기 유지에 적극적이었다. Plodk과 Thomas(1955)의 견해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이 없다고 했다. 대부분 과거에 거절당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Sullivan(1953)은 다음에 거절이나 과거에 고통스런 사회적 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기 방어를 개발한다고 했다. 자존심에 따른 방어기제에 연구에서 높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 거짓 방어기제를 인생의 초기에 형성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Cohen, 1959).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피하기 위해서 억압기제나 보상기제를 사용한다. 예컨대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했을 때 보상적인 행동으로 대처한다. 특히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가 불리할 때는 보상으로 행동을 하여 더욱 유익하게 적응한다. 이런 사람은 보상이 낮은 사람이 겪는 실망이나 좌절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반동형성을 사용하며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투사, 퇴행을 사용한다. 높은 자존심의 사람은 보다 지성화, 자기 비난을 적게 사용하고 자존심이 낮을 수록 공격, 도피, 투사를 사용하였다(Block & Thomas, 1955 ; Kaplan & Pokorny).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내적 통제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사회나 학교의 자존감 보다 개인 자존감이 더 관련하여 통제하였다(김춘예, 1992). Ihilevich & Gleser(1986)의 연구에서 자존심과 방어기제와 관련에서 자존심은 지성화, 억압기제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방어기제의 사용은 높은 자아성숙의 단계에서 더욱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Altrocchi, Parsons, Dichdff(1960)의 연구에서 신체적 이상과 자아개념 사이에 일치하지 않을때 방어기제의 사용을 연구한 결과 신체상과 자아개념 사이에 거리가 적은 사람은 억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신체와 자아개념의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신경성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 부적응 남자들에서 나타난 불안과 관련된 공격기제와 낮은 자존심의 관계에서도 내부 공격과 투사는 자존심과 관련있다(Berg, 1982

; Block & Thomas, 1955 ; Kaplan & Pokorny, 1969).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자존심과 질투에 관한 연구에서 외부로 돌리는 비난과 공격은 자존심과 관련이 없었으나 지성화, 도피는 자존심과 긍정적인 관련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많은 임상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내적 공격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이나 실망을 줄이거나 실패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최대로 사용한다(Frankel & Snyder, 197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심에 대한 연구나 내부 적인 공격에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사람에게서 두개의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모순 없는 내적인 세력을 유지하는 자존심이 적응을 조절한다.

방 법

대상

조사 대상은 과학 고등학교 2학년의 102명의 학생과 일반 고등학교 학생 2학년 1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도 구

자존심과 방어기제 도구는 연구자가 1992년에 제작하여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존심의 검사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20문항은 개인 자존심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20문항은 사회적 자존심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방어기제 문항이 1번부터 10번까지 자존심 문항은 11번째와 12번째 문항으로 배열하였다. 방어기제 조사내용은 10개의 하위 방어기제(보상, 합리화, 동일시, 투사, 승화, 고립, 퇴행, 억압, 백일몽, 공격)로 각 방어기제 별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심 검사 문항과 10개의 하위 검사 문항

과 합하여 모두 12개의 하위 검사에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 및 처리

개인 자존심, 사회 자존심을 포함 10개의 하위 방어기제 문항 마다 예와 아니오 중에서 개인 자존심, 사회 자존심의 한 문항에 1점씩 계산하여 각 소검사별로 20점을 최고 점수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라 영재 집단과 평재 집단의 자존심과 방어기제를 성별, 자존심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방어기제를 비교하고, 2학년 1학기에 받은 학교 성적을 상·중·하 단계로 학생이 평정한 기준을 각각 성적 상·하 집단별로 자존심과 방어기제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 처리하여 백분비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본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에 의해 F-검증, 단순 상관관계를 내는 적률 상관 계수를 변량 분석하였다.

결 과

평재학생과 영재학생 간에 성별, 성적에 따라 자존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표 2, 표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자존심 수준의 비교

아래의 표 1은 일반 학생과 영재 학생간 성과 자존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결과 평재 보다 영재학생들이 자존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개인 자존심은 집단간, 성별간, 그리고 집단과 성별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평재 집단은 남자가 개인 자존심, 사회 자존심 모두 여자 보다 높으나 영재 집단에서는 개인 자존심이 여자가 높고 사회 자존심은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 자존심, 사회 자존심 모두 평재학생 보다는 영재학생의 자존심이 더 높고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자존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자존심 수준의 비교

다음 표 2는 평재학생과 영재학생 간에 자존심 점수의 차이를 학교 성적 상·중·하 집단 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 자존심 점수는, 성적 상 중 집단에서 영재학생이 평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적 하 집단에서는 평재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 보다 개인 자존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성적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

표 1. 성별 자존심 수준의 비교

자존심	성 별	평재			영재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집단간	성별간	상호작용
개 인	남	54	12.72	3.90	74	13.72	4.23	10.78**	4.7*	3.96*
	여	46	10.41	3.69	28	13.75	3.28			
사 회	남	54	12.61	3.49	74	13.63	3.97	6.28*	7.13**	0.75
	여	46	10.67	4.03	28	12.67	3.17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성적과 자존심 수준의 비교

자존심	성적	평재			영재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집단간	성별간	상호작용
개인	상	31	13.38	4.01	21	14.48	3.68	17.27**	5.37**	6.86**
	중	60	10.63	3.54	73	14.03	3.68			
	하	9	12.55	4.61	8	9.13	4.85			
사회	상	31	12.61	3.40	21	13.57	3.29	10.31**	0.92	1.33
	중	60	11.15	3.82	73	13.46	3.81			
	하	9	12.44	5.17	8	12.00	4.84			

* $p < .05$, ** $p < .01$, *** $p < .001$

학업성적 상: 학업성적이 상·중·하에서 상위에 속한 집단

학업성적 중: 학업성적이 상·중·하에서 중위에 속한 집단

학업성적 하: 학업성적이 상·중·하에서 하위에 속한 집단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 자존심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평재 보다는 영재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개인 자존심은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고 사회 자존심은 집단과 학업성적 두 요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개인 자존심에서 영재와 평재집단 간에 .001 수준에서 영재집단이 평재 보다 개인 자존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 자존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재학생이 평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방어기제 수준의 비교

평재 학생과 영재학생 간의 성, 학교 성적별 방어기제 수준은 표 3, 표 4, 표 5와 같다. 위 표 3은 평재학생과 영재학생의 성별, 방어기제 점수의 차이를 10개의 하위 검사 별로 비교한 것이다.

성에 따른 평재와 영재 집단간에 비교한 결과는 10개의 하위 검사중 고립은 영재학생에서 의미있는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성에서는 평재학생 보다 영재학생에서 높고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

들이 고립기제에서 높게 나왔다.

그 외에도 보상, 합리화, 억압, 퇴행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집단과 성별간에는 동일시 기제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 동일시 기제는 영재학생에서 남자가 높고 평재 학생에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 성적에 따른 방어기제 수준의 비교

표 4는 평재학생과 영재학생의 학업 성적에 따른 방어기제 점수의 차이를 10개의 하위 검사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표 4의 10개의 하위 방어기제에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승화, 공격만이 의미 있는 성차를 보였다. 승화는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높고 특히 공격은 영재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학업 성적의 상·하 집단 간에는 승화에서 .01 수준에서, 공격기제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방어기제의 점수는 높았으나 승화기제만은 점수가 낮았다. 공격기제 점수는 성적 상·집단에 비해 하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평재 및 영재 집단의 성과 방어기제 점수의 통계치와 변량 분석

기 제	성 별	평 재			영 재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집단간	성별간	상호작용
보 상	남	54	9.05	2.89	74	9.05	2.95	.38	10.94*	.68
	여	46	10.72	2.47	28	10.03	2.35			
합리화	남	54	6.42	2.74	74	7.18	2.83	2.07	6.00*	.44
	여	46	7.67	2.59	28	7.89	2.79			
동일시	남	54	6.24	3.16	74	6.89	3.37	.11	2.23	5.08*
	여	46	8.00	3.69	28	6.39	3.01			
투 사	남	54	3.83	2.75	74	4.06	2.96	.26	.03	2.10
	여	46	4.45	3.08	28	3.46	1.99			
승 화	남	54	12.20	2.96	74	11.83	2.88	.03	.29	1.99
	여	46	11.00	3.01	28	11.85	2.62			
고 립	남	54	5.70	2.75	74	6.71	3.60	3.98*	2.28	.02
	여	46	6.52	3.34	28	7.39	3.76			
퇴 행	남	54	6.14	2.56	74	6.83	3.70	1.15	14.29*	.25
	여	46	8.24	3.36	28	8.42	3.43			
억 압	남	54	7.18	2.67	74	7.91	3.42	.484	4.90*	1.64
	여	46	8.73	3.20	28	8.28	2.71			
백일몽	남	54	9.88	3.83	74	10.90	4.05	.38	1.76	2.69
	여	46	9.97	3.93	28	9.10	3.05			
공 격	남	54	5.37	2.40	74	5.35	3.24	.67	.02	1.08
	여	46	5.84	3.43	28	4.89	2.65			

*p<.05, **p<.01, ***p<.001

표 4. 성적과 방어기제 점수의 통계치와 변량 분석 결과

기 제	성 적	평 재			영 재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집단간	성적간
보 상	상	31	9.54	2.35	21	9.61	2.72	2.19	2.57
	하	9	11.44	2.29	8	10.87	3.79		
합리화	상	31	7.12	2.12	21	7.80	2.87	.28	.97
	하	9	6.77	1.48	8	9.37	3.20		
동일시	상	31	6.64	3.16	21	7.14	3.21	1.91	.06
	하	8	6.37	2.87	8	7.75	4.16		
투 사	상	31	3.77	2.56	21	4.30	3.22	1.28	1.70
	하	9	3.88	1.45	8	6.50	3.66		
승 화	상	31	12.70	2.97	21	13.30	1.46	.16	6.67**
	하	9	10.77	2.33	8	11.12	2.53		
고 립	상	31	5.74	3.25	21	6.33	3.62	2.39	1.16
	하	9	5.66	3.53	8	7.37	4.65		
퇴 행	상	31	6.70	2.54	21	7.42	4.21	.09	.505
	하	9	6.77	4.20	8	9.37	5.06		
억 압	상	31	7.54	2.87	21	8.76	3.31	.04	.30
	하	9	7.22	3.70	8	10.00	3.74		
백일몽	상	31	10.09	3.81	21	10.09	3.81	.40	.21
	하	9	12.00	4.78	8	12.00	4.78		
공 격	상	31	4.90	2.59	21	4.85	3.42	1.65	8.39***
	하	9	6.66	3.16	8	9.62	3.82		

*p<.05, **p<.01, ***p<.001

한편 집단 요인과 학업 성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사, 억압, 공격 기제에서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사, 억압 기제에서 영재학생의 상·하에서 하 집단이 점수가 더 높고 평재학생은 차이가 없었다.

공격기제에서 영재학생만이 중 집단 보다 상하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투사, 억압기제는 성적의 상위 집단에서는 영재학생이 평재 학생 보다 높고 하위에서는 영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자존심 상·하 집단의 방어기제 비교

아래 표 5에서 자존심 상하 집단별 방어기제와 집단의 변량분석 결과 고립기제 퇴행기제, 억압기

제에서 유의한 차이로 영재학생이 평재학생의 점수 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자존심 간에는 보상 이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존심이 낮은 집단이 자존심이 높은 집단에 비해 방어기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로서 자존심이 낮은 집단에서 승화기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

본 연구는 평재학생과 영재학생의 자존심(개인 자존심, 사회자존심)과 10개의 방어기제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 학생이 평재학생 보다 자존심이 높

표 5. 자존심 수준별 방어기제 점수의 통계치와 변량 분석

기 제	성 별	낮은 집단			높은 집단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집단간	자존심	상호작용
보 상	영	37	9.83	2.67	65	9.03	2.87	1.36	1.00	.14
	평	64	10.12	2.68	36	9.27	3.01			
합리화	영	37	9.10	2.33	65	6.40	2.61	3.60	25.11***	3.56
	평	64	7.60	2.41	35	6.08	2.82			
동일시	영	37	8.10	3.61	65	5.98	2.79	.03	14.69***	.06
	평	64	7.85	3.61	35	5.77	2.71			
투 사	영	37	5.35	3.05	59	3.38	2.01	0.07	20.09***	4.29
	평	64	5.04	2.85	31	3.35	2.18			
승 화	영	37	10.89	2.64	65	12.38	2.76	.64	7.99**	.33
	평	64	11.53	3.22	36	11.86	2.68			
고 립	영	37	8.94	3.15	65	5.73	3.39	13.07**	27.22***	.72
	평	64	6.93	2.93	35	4.68	2.58			
퇴 행	영	37	9.59	3.75	64	6.04	2.85	5.17*	43.87***	1.43
	평	64	8.03	2.98	36	5.47	2.70			
억 압	영	37	9.75	3.30	65	7.03	2.93	4.19*	42.28***	.03
	평	64	8.96	2.73	36	6.00	2.55			
백일몽	영	37	12.08	3.55	65	9.46	3.75	3.61	16.28***	.51
	평	64	10.68	3.67	36	8.58	3.86			
공 격	영	37	7.18	3.10	65	4.10	2.47	.57	46.32**	.88
	평	64	6.53	2.89	34	4.14	1.9			

* $p < .05$, ** $p < .01$, *** $p < .001$

상 자존심 집단: 개인 및 사회 자존심 점수 합이 25점 이상 집단

하 자존심 집단: 개인 및 사회 자존심에서 얻은 점수합의 평균이 25점 이하

았다. 남녀 집단별 비교에서도 개인 자존심과 사회 자존심에서 영재 집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존심에서는 평재학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개인 자존심이 높고 영재학생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높다.

사회 자존심은 영재와 평재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에 따른 비교에서는 영재 학생의 성적 상 집단이 평재 학생의 상 집단에 비해 사회 자존심에서 높고 특히 개인 자존심에서 더 높았다. 성적 하 집단에서는 평재가 영재보다 높았다. 이는 성적이 높으면 자존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평재학생의 성적 하 집단은 개인 자존심에서 높았는데 이는 영재 학생의 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자존심은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관련하여 발달하는 주장과 일치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기 평가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학업 성취와 실패가 기초된다. 개인의 평가의 과제는 성공이며 사회 평가의 주 과제는 타인의 대우이다. 따라서 자존심은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나, 자신의 능력, 성취, 긍정적인 예측, 사회 수용에 따라 반응하는 정신적 확신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다. 이 같은 결과는 영재 집단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더 냉정하거나 학교 성적의 결과도 그 이유를 외부에 돌리지 않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생의 낮은 자아개념은 학업 성취에 그 원인이 크고 그 평가는 성적이 주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존심 수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판단과 관계가 있다.

자기 평가의 시기는 어린 시절 부터 시작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린시절 부터 자존감을 낮게 평가하도록 끊임 없이 압력을 받아 왔다. 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자신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가치의 근원은

육체적, 지적, 정서적, 물질적, 상호작용, 영양의 전후 관계에서 정신적 회복을 기하려는 실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심은 낮은 것도 지나치게 높은 것도 아닌 적당한 수준에서 진정한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청년기의 학생들은 환경의 기회, 정보 처리, 결심, 용기의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방어기제의 비교에서 10개의 하위 검사중 고립기제에서 평재학생보다 영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 간의 비교에서 보상, 합리화, 억압, 퇴행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여학생들은 퇴행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을 상대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인간은 본능적 에너지를 억압을 한다는 Taylor와 Barron (1963)의 연구와 일치한다.

영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는 지적인 가능성과 자기 개방성에 관심이 크다. 어쨌든 영재 학생은 평재 학생보다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각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적인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있지도 않은 높은 자존심은 그 요소를 과대 평가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감정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성적에 따른 방어기제 사용을 비교해 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승화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성적이 낮을수록 공격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현실적으로 자존심이 낮은 개인들은 반전되어 그 공격은 내적인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공격기제는 영재 집단과 평재 집단에서 비슷하게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높았다. 특히 영재 집단에서 학교 성적이 낮은 집단이 성적이 높은 집단에 비해 공격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으면 승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적인 낮은 학생들은 반대로 평재나 영재의 모두에서 공격기제를 더 사용한다.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지 적인 양육을 받지 못할 때, 불안의 방어적 표현으로 나타 나는데 그 같은 자녀는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구본권, 1978).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경우 아동은 자신의 공격을 내부로 향하거나 자신의 성취 기준을 높게 설정한다. 그러나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심한 경우에 아동은 정서적인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고 철수하게 된다. 이같은 초기에 정서적인 경험의 중요성은 그 경험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격의 대상이 어디냐?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을 내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나 영재학생과 평재학생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성적인 낮은 집단에서 공격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영재 학생은 자기 불만을 신경성으로 평재 학생은 반 사회적인 방법으로 적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유는 영재학생 보다는 평재학생들이 성취수준이 떨어지고 억압을 적게하기 때 문이다. 반대로 영재학생은 고립이나 억압을 더 한다는 결과 때문이다. 평재학생의 하 집단의 학생들은 자신의 평가 수준이 낮다. 그 이유는 주변의 기대 수준이 영재학생의 하 집단 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재 하 집단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한 것 뿐 아니라 주변의 높은 기대로 인해 평재 보다 부담을 보다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다. 학생에게 자존심의 상처는 성적이지만 이는 양 집단이 모두 비슷하게 경험한다. 성적의 기대나 자기 평가는 개인의 성취 수준이나 평가 수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 학업 성취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하여 비난, 거부, 고립, 회피의 방어행동이 관찰되었다(Walsh, 1956; 구본권, 1993). 이 같이 자존심은 성취에 대한 자기 평가에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기의 학교의 성적은 자존심을 얼마든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요

인이다. 영재 학생이건 평재 학생이건 그 능력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성취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자기를 낮추는 평가로 직접 연계된다.

셋째, 자존심 수준에 따른 방어기제의 비교에서 자존심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10개의 방어기제 중에 승화를 제외하고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방어기제는 자존심이 낮은 집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성취 수준의 압력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Coopersmith(1991)의 주장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존심 수준에 따른 영재학생과 평재학생과의 비교에서도 고립, 퇴행, 억압기제에서 영재가 평재 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 왜 영재 학생들이 고립이나 퇴행에서 높게 나왔는가? 이는 연구 결과에 논의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영재학생들의 경험적인 해석이나 논의가 따라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퇴행은 미성숙된 방어기제로 인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의 참여가 적거나 사회를 거부하거나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정신장애자의 임상에서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고립이나 퇴행이 사회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과학 고등학교 교사나 그 부모, 한국의 과학 고등학교 교사나 부모가 비슷하게 자기 영재 자녀가 사회적으로 미숙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전경원, 1994). 그러나 연구자들은 학교에서 동년배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Morrow, Wilson & Zilli, 1961). 교사나 부모들이 그들의 영재 자녀를 사회적으로 미숙하다고 하면서도 학급에서 인기가 없거나 이로 인하여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의 고립이나 퇴행의 해석은 단순히 정신분석적 해석보다는 더 깊은 도덕적 가치에 관여시켜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 확실히 영재학생은 남에게 우호적 이거나 도덕적

으로 높기 때문에 고립의 해석이나 추론은 더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부롱즈(Bronx과학 고등학교) 개교 당시에 지체 장애 학급을 설치하여 1년간 영재 학생들이 어떻게 협조하는지를 평가했다. 결과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매우 협조와 우호적 이었다. 계단, 교실, 강당에서 언제나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자신들은 자제(억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그들의 부모들이 경쟁이나 개인주위를 더 요구하였다(김재은, 1986) 그러나 자존심이 낮은 청소년이 적응 방법에서 미숙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되어야하는가?. 따라서 자존심이 낮은 청소년은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곧 정신적인 능력이 빈곤한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행동의 일관성이 매우 적다. 일관성은 높은 자존심으로 부터 나오며 반면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모방에서 자기와 타인을 만족 시킨다. 그러나 낮은 자존심을 갖은 사람도 행동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고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가치있는 지각을 얻을 수 있고, 일치 하지 않는 경험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자존심의 보호는 방어기능의 핵심이다. 자아를 보호하는데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반작용이 나타난다. 방어기제는 자아의 통합적인 보호를 한다. 자존심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제는 방어 자체가 적응의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합리화를 계속하면 그 실수에서 이점을 얻을 수가 없다. 합리화의 기제는 자기를 속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자존심과 방어 기제간의 성별 관계에서 평재학생은 억압과 공격 기제간에 상관이 높고, 영재학생은 퇴행과 억압과의 상관이 높게 나왔다. 여학생이 억압 기제에서 남학생 보다 높은 주요인은 여성 자신이 타인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의존과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기대와 행동으로 보는데 있다(Bowling, 1981). 따라서 여성은 아직도 성취 업적에 도전하기 보다는 철수 하거나 망서려 우수한 능력을 부인할 소질이 충분히 있다(Glance & Imes, 1978 ; 전경원, 1994).

이상의 결론에서 영재학생은 평재학생에 비해 자존심이 높고, 방어기제에서 평재학생에 비해 고립의 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존심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특정한 방어기제를 더 사용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높은 영재학생이 왜 고립, 억압, 퇴행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지는 앞으로 경험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본권(1993). 장애인의 자존심과 방어기제.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 구본권(1994).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교 논문집 25호, 273-304.
- 김진희(1994). 영재 판별 평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 김천익(1989). 영재교육의 기초이론(pp. 43-44). 재동문화사.
- 김재은, 장명숙(198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p. 77).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휘, 주영숙(1987). 영재학생을 위한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인간 심리와 자아 개념, 양서원,
- 이종승외 2인(1980). 한국청소년 영재의 종 단적 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강이, 이순형(1991).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과 관련변수. 한국청소년연구, 6, 113-126.
- 이군현(1989). 영재교육학. 박형사(p. 154).
- 이경신(1993). 과학교동학교 학생의 정신건강.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연섭, 조석희(1994).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영재교육논총, 1.
- 이종승외 2인(1980). 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행동과학연구, 13(1).
- 윤성길(1992). 초등학교 미성취 영재아의 가정 환경과 정서적 행동특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임동철(1992). 영재아의 학교적응에 대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전경원(1994). 특수한 영재교육. 서울 : 양서원.
- 전경원(1991). 한국 과학 영재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정신건강 비교연구. 과학영재연구회.
- Andrzel Sekowski(1995). Self-esteem and achievements of gifted students.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0, 65-70.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i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3-10.
- Coopersmith, S.(1991). *Self-Esteem Ivenotries* (SEI).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Fenichel, O.(1945).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 Norton.
- Fitch, G.(1979). Effects of self-esteem, perceived performance, and choice on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11-315.
- Getzels, J. W.(1969). A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In Lindzey, G & Aronson, E. (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5.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Inilevich, D. & Gleser, G. C.(1986). Evaluating ego defense mechanisms using clinical interview :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iabetic and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dolescence*, 9, 536-546.
- Kaplan, H, B.(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 Academic Press.
- Kline, P.(1988). The scientific status of the defense mechanism test(DMT) : A response to Cooper :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1.
- Kyung Won, Jeon(1991). *A study on Mental of scienticcally Gifted high school Males and Females*, 9th world Conference for Gifted Children in Hague, Netherland, July 29-August 2.
- Laxer, R. M.(1964). Self-concept change in depressive patients in general hospital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 214-219
- Mylet, M., Styfco, S. J. & Zigler, E.(1979). The interlationship between self-image disparity and social competence, defensive style and adjustment statu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7, 553-560.
- Percell, L. P., Berwick, P. T. & Beigal, A. (1974).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self-concept and anxie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1, 502-504.
- Renzulli, J., Smith, L, White, A., Callahan, C., & Hartman, R.(1976). *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superior student*. Wether field, Ct : Creative Learning press.
- Rios-Garcia, L. R. & Cook, P. E.(1975). Self-derogation and defense styl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9, 273-281.
- Ruth R. Adams(1994). Case study : Jimmy-a gifted child with Behaviour difficulties,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vol 10, 21-23.
- Schwab, j., Baldwin, M., Gerber, J., Gamon, M. & Satir, V.(1989). *The satir approach to*

- communication. A workshop manual.* Palo Alto : Science and Behaviour Bookks, Lnc.
- Slagle, S. J.(1965). *self esteem and patterns of defense*. Unpublished doctro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Terman, L. M., & Oden, M. H.(1947, 1951,). *The Gifted group at mid-life : Genetic studeis of genius*(vol. 5).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A. R., & Krane, R. V.(1980). Changes in self-esteem and it's effecton symptom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19-421.

Self-Esteem and Defense Mechanism of the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Koo, Bon-Kwon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Kang Nam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ring to light the self-esteem and defense mechanism of the student in the science high school. The result of studying 102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and 100 common high school students by using the tool of self esteem and defense mechanism is as follows.

Firstly, gifted student are higher than common high school students in the level of personal self-esteem and social self-esteem. This is applicable to the comparison of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respectively. Common male students are higher than common female students in personal self esteem, but gift female students are higher than gifted male students. Gifted and common male students are higher in both personal self-esteem and social self-esteem. In term of academic record, the upper group of gifted students have higher social self-esteem than the upper group of common students, especially much higher personal self-esteem. The lower group of common student are higher than the lower group of gifted ones in personal self-esteem, but both group show little difference in social self-esteem.

Secondly, gifted students are higher than common students only in 'isolation' among ten sub-test of defense mechanism. Female student are higher than male students in 'repression' and 'regression'. And so it proves that repression and regression are more frequently done by female students.

Thirdly, the group with higher self-esteem are lower in the use of sub-test except 'sublimation'. In other words the group with lower self-esteem use more and the group with higher self-esteem use 'sublimation' more frequently. They show little difference from other students in other sub-tests of defense mechanism.

Key Words : self-esteem and defense mechanism